

5·18 아픔 보듬은 거리 치유 담은 작품이 달린다

일주일 전 광주시 북구 중흥동 육거리에 자동차 부속품들로 만들어진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대형 조형물이 세워졌다. 일부 주민들은 갑작스런 작품에 의한 반응을 보였고, 또 일부 상인들은 공감하며 작품 석좌대를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오월길' 1단계 햇불코스 마무리

상징물 4개·우체통 2개 설치

곳곳에 브랜드·캐릭터... 랜드마크로

로, 당시 학생들은 이곳에서 계엄군에 저항하며 햇불을 들고 금남로로 행진을 시작했다. 전남대 정문에는 오월길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느린 우체통'이 설치됐다. 방문객들이 5·18 피해자나 지인들에게 엽서를 작성해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이듬해 5·18 기간에 발송된다.

전남대 정문 사거리를 지나 신안동 사거리로 향하면 '꼭두 벤치'가 기다리고 있다. 이 벤치는 인근에서 50여년 넘는 시간 동안 목공예사를 운영해온 시민이 작가들과 함께 제작했다. 전면에는 한국 조각의 원형인 꼭두 형상을 새겼고, 후면에는 상여 꽃장식을 붙여,



'5월 시민의 상'

새로운 생을 안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동차의 거리가 시작되는 신안동 사거리에는 자동차의 각종 부속품으로 제작된 '해태의 꿈'이 묵직하게 서있다. 햇불을 들고 전남대 정문에서 걸어오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걷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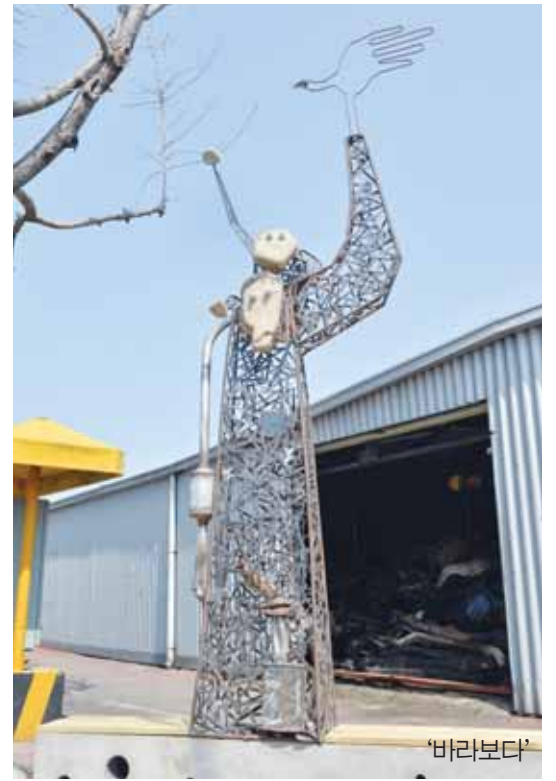
거리 곳곳에는 오월길을 상징하는 표지석이 놓여 있다. 이 표지석에는 무등산의 상징인 주상절리 형태를 모태로 한 엄지발가락 이미지와 '5·18 Road 오월길'이라는 글씨가 함께 새겨져 있다. 중흥동 육거리에는 '5월 시민의 상' 맞은편에 아바



'해태의 꿈'

지 무등을 탄 아이 이미지의 벤치인 '바라보다'가 놓여 있다. 오월길은 역사의 현장에 걸으면서 오월의 아픈 과거와 함께 버려진 공간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다. 또 코스 곳곳에 고유 브랜드와 캐릭터들을 입혀 도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취지다.

오월길 조성사업을 주도해온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이무용 교수는 "오월길 사업은 길이라는 이름새를 통해 역사 속의 인물과 공간의 흔적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오월이 아



'바라보다'

픈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자랑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남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인권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5·18 사적지와 지역을 연결하는 오월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오월길 조성사업 2단계 코스는 전남대 정문에서 교도소를 거쳐 5·18국립묘지까지 이어지는 길로, 모두 2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산수영장에 가면 갤러리가 있다

북구건강타운 '미래갤러리' 오픈... 내달 14일까지 개관전

수영장에서 그림 감상. 광주시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센터장 정재현) 지하 1층 로비에 위치한 '미래갤러리'(관장 윤병학)가 지난 25일 오픈했다.

(사)백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 위탁·운영하게 되는 미래갤러리는 20호 크기의 작품 30여점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수영장 내에 갤러리가 문을 열게 된 데는 화가 윤병학씨가 지난해 우산수영장 관장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됐다. 윤 관장은 수영장 로비부터 비어 있는 공간이 아쉬웠고, 수영장 회원들에게 문화공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갤러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전시를 통해 주민들과 문화예술의 감성적 사고를 공유하면서 회화적 공간으로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

해 미래갤러리라고 이름 지었다. 정기적으로 수영장을 찾는 회원만도 2500여명에 달해 회원은 물론 작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래갤러리는 앞으로 북구지역 작가들에게 우선적으로 무료대관을 해주고 다양한 기획전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갤러리는 오픈과 함께 개관전으로 다음달 14일까지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현대미술 신춘기획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종일, 우재길, 최재창, 김성우, 전병문, 홍성아씨 등 작가 21명의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작가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내놓은 수석 등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2-267-885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시아 전통의 소리, 신명의 소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28일 정기연주회... 김광복 지휘자 첫 무대



지휘 김광복, 사물놀이 김덕수, 해금 강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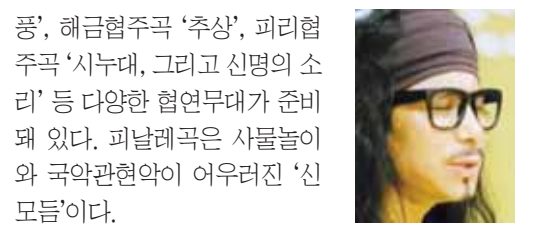
올해 새롭게 부임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김광복(전남대 국악과 교수) 지휘자가 첫 무대를 갖는다.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사)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를 설립, 오랫동안 아시아 각국의 음악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김 지휘자는 이번 연주회의 타이틀을 '아시아, 신명의 소리'로 잡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각국 전통 악기로 구성된 한·아세안오케스트라 운영 등 광주가 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이 된다는 점을 감안,

전통·창작 국악 뿐 아니라, 아시아의 다양한 음악을 접목시켜 새로운 음악을 들려준다는 포부다. 특히 이번 공연은 기존 국악관현악단의 레퍼토리와는 전혀 다른 구성이라는 점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주목된다. 이번 공연에는 사물놀이의 김덕수, 해금연주자 강은일 등 국내 유명 연주자들과 재즈 피아니스트 J.C 클락, 마두금 연주자인 몽골의 영호밴드, 티벳 소리를 들려줄 카라 뱌뵤, 중국 전통악기인 고쟁 연주자 주자립 등 다국적 아티스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관현악곡 'Mongolia horse'는 몽골 작곡가 삼부른 데부가 위촉을 받아 만든 곡으로 아쟁 선율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이다. 재즈 피아니스트 J.C클락이 협연하는 '프론티어'는 양방언의 곡으로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간담회 공식음악이었다. 또 마두금협주곡 '싱고고비', 고쟁협주곡 '전태



티벳소리 카라뱌뵤, 해금협주곡 '추상', 피리협주곡 '시누대, 그리고 신명의 소리' 등 다양한 협연무대가 준비돼 있다. 피날레곡은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진 '신모듬'이다. 김광복 지휘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들어서면 광주는 아시아의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주회가 그 기초를 닦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5668-89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공모 공정하게" 문화도시형 성명서

광주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최근 공석이 된 광주 문화재단 사무처장의 후임 공모를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개 시민 문화예술 단체로 구성된 광주문화도시형 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문화재단 후임 사무

처장의 공모가 공정하게 이뤄져 적합한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형은 "재단의 신임 사무처장은 재단 설립 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 지역출신이나 아니더라도 광주문화

예술계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인사 등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처장 선임에 대해 광주시는 물론 시의회, 광주 문화예술 단체 등에서 추천 받아 공모 심사위를 구성하길 제안한다"며 "특히 심사위원 구성 자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만 사무처장 선임 과정의 객관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